

봄이왔나 봄 백화점 '봄 정기세일'

광주 신세계·롯데 내일부터 최대 60% 특가전 와인 박람회 등 대형 행사 다양...상품권 증정도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가 따뜻해진 날씨에 예년보다 빨리 봄 시즌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날씨가 따뜻해져야 봄 상품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평년보다 1주일 가량 이른 정기세일에 나선 것이다. 인기 브랜드를 할인하는 것은 물론, 대형 행사와 와인 박람회 등 고객 선점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곁들인다.

◇광주신세계, 대형 행사 전진 배치로 고객 선점 나서=광주신세계는 오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 브랜드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정기세일에서 '메종드 신세계', '영캐주얼 트렌치코트', '코스메틱'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우선 세일 첫 날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가구, 주방용품, 침구, 인테리어 소품까지 한방에 합리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메종드 신세계'를 펼친다. 생활 바이

어들이 엄선한 '바이어 기획 상품'을 지하 1층 생활 브랜드매장과 행사장에서 특가에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휘슬러'에서는 '아다만트 컴포트 팬 세트'를 24만9000원(80세트 한정), '에지리'에서 '크레이지팟 법랑냄비'(12cm) 세트를 3만9900원(50개 한정), '까르마 스트레칭 서포트'를 13만5000원(10개 한정)에 판매하는 등 특가 상품을 마련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일부 제품에 한해 40~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외 간절기 침구 브랜드를 파격 할인한 가격으로 29~31일까지 3일간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선보인다.

또 봄철 날들이 시즌을 맞아 외부활동으로 인한 피부 상품도 준비, 2층 화장품 매장에서는 브랜드별로 디올 어딕트 스텔라 사인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

1층 이벤트홀에서는 선글라스 행사도

29~31일까지 펼친다. '질스투어트', '안나수이', '생로랑', '레이벤', '퀵라' 등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시에로', '지컷', '툰보이' 등 브랜드가 참여해 간절기 트렌치코트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와인 박람회·해외 명품대전 마련=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17일간 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우선 롯데백화점 창립 4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삼성 갤럭시 S10' 신제품을 초특가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애플리케이션에서 특가 구매 쿠폰을 내려받아 백화점 내 삼성전자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 40명 한정에 갤럭시 S10을 정가보다 60% 저렴한 44만원에 판매한다.

또 올해 첫 해외명품 대전과 와인박람회를 마련해 오직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기아이템도 별도로 준비했다.

28일부터 진행되는 와인박람회는 지하 1층 특별매장을 마련해 각 세계 각국의 유명 와인과 특색 와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해외명품대전을 세일기간 보다 더 일찍 진행해 27일부터 31일까지 지하1층 행사장에서 5억원대 물량을 최대 30~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참여브랜드로 '에트로', '막스마라', '오일릴리', '비비비 안웨스트우드', '골든구스', '발렌시아가' 등이다.

4월 5일에는 단 하루 줄서기 상품전도 지하1층 식품관에서 열린다. 바나나 1손 2000원, 딸기 1박스 6000원, 계란 30구 한 판 2000원, 아몬드·호두(600g) 9000원 등 우대가로 선착순 판매한다.

이밖에 지역 신규 입주 고객의 증가로 세일기간에 맞춰 4월 3일부터 9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는 '가전&가구 입주이사 박람회'도 연다. 편안한 자리 소파 특점으로 다우닝 진열상품 가구를 30~40% 할인, 이탈리아 전 구매 고객에게는 패브릭 쿠션과 도자기 머그컵(2P)도 증정한다. 이외 이탈리아 휴 및 본토도 특가 상품을 준비했고, 건조기,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매 시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사육대봉사단이 광주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주거개선 봉사활동으로 내부 벽지를 교체하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1호 '러브하우스' 완성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27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활동인 '행복한 러브하우스'의 올해 첫번째 보급자리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한 러브하우스' 대상자는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고령의 나이에도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63)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오랫동안 집 수리와 관리가 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사육대봉사단은 이날 해당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교체, 내부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양남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마트 '통큰 치킨' 돌아왔다

21주년 기념 '극한도전' 나서

롯데마트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21일간 초대형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2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창립 21주년을 맞아 '극한도전'을 테마로 3주간 연속 최대 행사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총 1600여개 품목의 상품을 할인 및 초특가로 선보이는 행사로, 롯데마트의 전사적 역량이 투입된 1년 중 가장 큰 행사다.

롯데마트는 21년 동안 찾아주신 고객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파격적인 가격과 상품을 선보인다는 의미로 '극한도전'이라고 테마를 잡았다. 이번 행사는 가격에 초점을 둔 '극한가격'과 우수한 품질에 중점을 둔 '극한품질', 다양한 혜택을 위한 '극한혜택' 총 3가지 콘셉트로 행사를 준비했다.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롯데마트 창립21주년 극한도전' 1탄에서는 롯데마트 MD(상품기획자)가 1년간 준비해 온 파격적인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다음달 1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매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제안할 방침이다.

우선 롯데마트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100% 국내산 냉동 닭을 사용한 '통큰 치킨'을 마리당 5000원(1인 1통)에 판매한다. '통큰 치킨'의 일반 판매가는 7900원이며, 엘포인트 회원은 5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수입 소고기 전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 상품으로 '미국산 냉동 LA갈비'(100g)가 3900원, 엘포인트 회원이 카드사 할인 적용시 194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불고기용 '호주산 냉장 곡물비육 앞다리'(100g)는 2000원으로, 엘포인트 회원이 카드사 할인 적용시 1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외 '닭스터'(420g·캐나다산)를 8800원에 판매하며, '완도산 활 전복'(특대)은 3300원에 준비했다.

이밖에 당도 선별시 10%내외의 나오는 고당도 사과만을 엄선한 '황금당도 충주 사과'(4-6입)를 9900원에 판매하고, '황금당도 담양딸기'(1kg)'는 1만 1900원에 선보인다. 국내 단독으로 CA(기체제어) 저장 양파를 선보여 '갓 수확한 그대로 CA양파'(2kg)를 3000원에 판매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공용신발 신고 나들이가요"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패스너스트리트 키즈 편집숍 '토박스' 매장에서 직원이 '다이노슬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이노슬즈는 미국 공룡 운동화의 대명사로 티라노사우루스, 트라케라톱스, 벨로키랍토르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디자인을 신발 외관과 발바닥에 적용한 게 특징으로, 걸을 때마다 LED 조명에서 불빛이 나오도록 설계돼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미세먼지 공습에 퍼스널케어 제품 '불티'

이마트 46% 매출 신장

미세먼지로 개인위생 관련 제품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퍼스널케어 제품은 46.3% 매출이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클렌징, 바디워시 핸드워시 등 바디케어 제품이 59.7% 신장해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 핸드&바디로션, 웨이셜 마스크 등 보습용품 역시 35.1% 매출이 늘었다. 헤어트리트먼트, 헤어컨디셔너 등은 24.6% 신장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 되자 공기정정기, 건

조기, 의류스타일러 등 가전제품을 통한 공기질 관리와 의류관리를 넘어 클렌징, 보습케어 제품 등 개인위생 관리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마트 측의 분석이다.

바디워시는 피부손상 최소화하는 클렌징과 저자극·천연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인기였다. 클렌징은 피부임상센터에서 세정

력(98.7%) 효과를 입증한 제품과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들이 일반제품에 비해 3배 이상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바디워시 제품도 천연재료 성분(이스라엘 사해소금, 캐나다 빙하수 등)을 함유한 홈스파 제품과 식물성 오일 추출물(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씨드, 코코넛, 월넛)로 만든 제품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신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